

2019공예비엔날레 41일 여정 마무리



미래와 꿈의 공예, 봉유도원이 펼쳐지다'를 주제로 열린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가 17일 41일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11회째를 맞는 행사에는 세계 35개국 1200여 명 작가가 20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세계 최초 이자 최대 규모 공예전시의 위상

을 확인시켜줬다.

십 수년간 빙치됐던 담배공장을 개조한 문화체조장과 동부창고가 주 전시공간으로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각 지자체의 방문이 이어지는 등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범사례로 각광 받았다.

또 정북토성과 율량동 고가(古

35개국 1200여 명 작가 2000여 점 작품 선보여

가), 옛 청주역사전시관 등으로 전시공간을 확대, 시민들에게 숨겨진 역사문화공간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지난 비엔날레에서 한차례 중단됐다 부활한 국제공예공모전은 46개국 787명의 작가가 참여해 권위를 회복했고 기준 1인 대상 체제가 아닌 다수 수상체제로 신진 작가 발굴이라는 본래 취지를 실렸다.

공예비엔날레 본전시 참여 작가들을 상대로 한 '황금플라티너스상'이 처음 마련돼 심사전 작가의 투각 등 4명의 본상 수상자와 4명의 특별상 수상자에게 돌아갔다.

이 외에 덴마트와 헝가리, 중국,

아세안 10개국 등 4개 초대국가관과 초대국가의 날 운영 등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기획 등도 눈에 띄었다.

전문 도슨트 12명과 시민 도슨트 8명, 가족 도슨트 20명 등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우며 호응을 얻었다.

관람객 동원과 연휴·주일 등이 없는 상황에서 관람객은 목표인 35만여명을 달성했고 이 중 외지 관람객이 15만명, 외국인 관람객 2만1000여명을 차지하는 등 지역 한계를 넘었다.

행사 초반 문화체조장에서 동부 창고로 이어지는 동선 안내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익산 강동식씨,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 풀코스 우승

목포 차도현 군(3) 최연소 참가 이목 집중시켜

제17회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 남자 1위에 강동식씨(전북 익산시)가 2시간52분15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1위는 이광숙씨(경남 김해)가 3시간31분41초로 우승했다.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인 4000여명의 선수들과 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고창에서 17일 개최됐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선사시대부터 마한시대까지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꽂아온 모로비리국의 고장에서 '농생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마라톤 참가자 중 목포시 차도현군(3)은 최연소 참가자로, 전북 고장 안흥종씨(83)는 최고령자로 진강코스(5km)에 도전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고창고인돌마라톤 동호

회에서는 고인돌을 상징하는 원시인 복장을 제공해 이목을 끌었고, 고창전통시장상인회에서도 50여명의 회원들이 유니폼을 맞춰 입고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인 4000여명의 선수들과 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고창에서 17일 개최됐다.

또 70세 이상 참가자 60명은 노인장을 과시했으며, 20인 이상 단체 참가팀도 평택시마라톤연합회

를 비롯해 대구동구육상연맹 등 21개 단체가 참가해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가 전국규모의 명성을 얻은 대회임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켰다.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출전을 선호하는 고창고인돌 마라톤 대회는 2003년 첫 해부터 꾸준하고 다양한 머거리로 참가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올해도 떡국, 막걸리, 두부·김치, 인절미 등 푸짐한 머거리로 썰썰한 날씨 속에서 열심히 뛰어 준 선수들에게 고창의 정이 들판 딥길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뉴스1

"걷는 만큼 건강해져요" 노원 명품길 걷기 행사 개최



서울 노원구가 지역 내 다양한 걷기 코스를 일리고 걷는 문화 확산을 위해 '노원 명품길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5개 코스로 구성된 노원 명품길을 5일 동안 하루 1개 코스씩 걷는 행사로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

행된다.

18일 당현천 산책로를 시작으로 19일 경춘선 숲길, 20일 중랑천 산책로, 21일 우이천 산책로, 22일 불암산 둘레길을 걷는다.

걷기 코스를 살펴보면 먼저 '당현천 산책로'다. 지하철 7호선 중계역 부근 어린이 교통공원을 출발해 당현2교를 지나 상계역을 반환점으로 염광교, 양지교를 거쳐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되돌아오는 3.8km 구간이다.

경춘선 숲길은 하계2동 주민센터 인근 병문자센터를 출발해 공릉

동 행복주택, 화랑대역, 육시체육관, 태릉으로 이어지는 4km 구간이다.

중랑천 산책로는 노원구청 앞 창동교에서 출발, 녹천교, 경춘철교, 한천 가로공원, 경춘선 숲길 방문자센터로 이어지는 5km 구간이다.

우이천 산책로는 석계역 문화공원을 시작으로 장월교, 월계2교를 지나 월계 극동아파트 앞 인도교를 반환점으로 염광교, 양지교를 거쳐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되돌아오는 4.5km 구간이다.

각 구간을 완주할 때마다 노원구를 상징하는 동식물 등을 형상화 한 기념 배지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은 범죄행위이며, 미래까지도 같하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
재산은 물론 행복, 꿈, 미래까지 영영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보다
건전한 스포츠를 즐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